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KOREA FOOD SECURIT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1차년도(2025년) 연보



KFSRI



[목차]

• 박현진 소장 인사말	02
• 연구소 개소식 축사(김동원 총장, 윤준병 국회의원)	03
• 연구소 소개	04
- 연구소 설립 경위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자산 이관 목록	
- 연구소 규약	
-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 1차년도 사업내용	10
- 운영위원회	
- 연구사업	
- 학술회의	
- 논문발표	
- 연구소 홈페이지 개설	
• 1차년도 재무보고	15
• 운영위원 칼럼	15
• 도서출판 식안연 출판현황	20

연구소장 인사말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식량안보연구소가 탄생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24년 10월 29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재단의 해산일을 2024년 10월 31일로 결의하였고, 2024년 11월 15일 그동안 재단을 후원하시고 협력하신 분들을 모시고 재단 해산식과 아울러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개소식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봄(2025년) 재단의 해산을 위한 법적절차를 마쳤고, 2025년 4월 5일 재단 기금을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기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재단과 연구소는 그동안 세계 식량위기의 위험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운동과 정책 제안을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고, 곡물 자급률은 23%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해 식량위기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을 발표하여 21대 국회에서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고,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안보기본법’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는 하루 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가 중요 정책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고려대학교에 신설된 한국식량안보연구소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모든 자산과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2025년 연구소의 지정연구과제로 ‘식량생산 및 비축을 위한 신기술 평가와 적용성 제고 연구’를 네 분의 연구자가 각각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작물 생산성 향상과 이용 현황에 대한 최근 동향’ (곽상수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체육 생산 기술과 안전성 평가’(박현진교수, 고려대학교), ‘식품 방사선조사기술의 발전현황과 국제적 이용사례’ (김상철소장, 그린피아기술(주)), ‘공기합성 단백질 생산기술의 발전과 미래전망’ (이민혁교수, 고려대학교)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10월 1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222호에서 발표하였고,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식량위기의 언론과 SNS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농업을 통한 식량 확보에도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본 연구소는 식품산업의 식량안보기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역할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일에 계속적으로 기여하려고 하였습니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새 희망과 새 기운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탄생한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식량안보연구소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1월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소장 박 현 진

연구소 개소식 축사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개소식에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장 김동원입니다. 오늘 개소하는 고려대 식량안보연구소는 2010년 출범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설립 취지와 사명을 승계한 연구소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설립 이래 15년의 역사를 통해 세계 식량 위기의 위험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이에 대응한 국민 운동과 정책 제안에 노력해 왔습니다.

식량 자급률 50%가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식량 안보 지수가 최하위권으로 식량 위기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은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식량안보는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가 중요 정책 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는 이 분야에서 선도적 활동을 펼쳐온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업무와 자산을 이관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는 국민과 정부 당국자들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 조성과 학문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박현진 이사장님과 이철호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가 국가와 인류의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큰 역할을 해주길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고려대학교 총장 김 동 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해산과 더불어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순수한 민간 연구기관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을 조사 연구하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체할 방안을 우리 사회에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은 넘쳐나지만 곡물자급률은 최근 3년간 평균 19.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식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만큼 하루빨리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 폐기된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 발의하기 위해 현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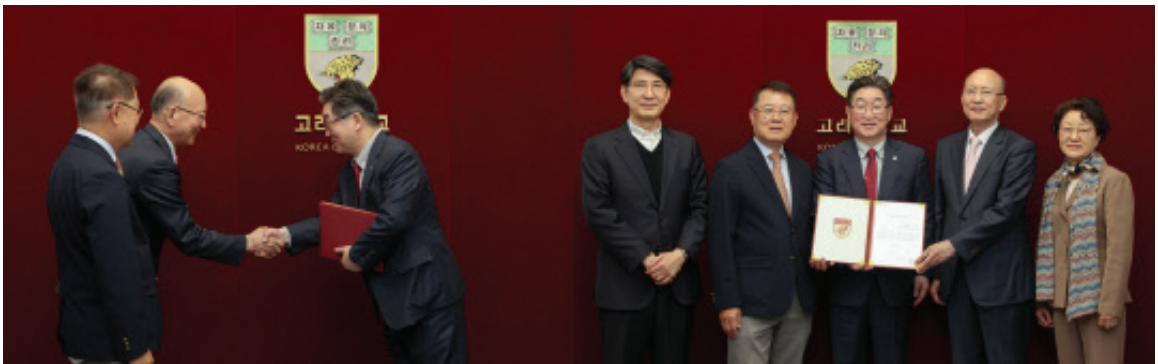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 신설되는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 연구소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회의원 윤 준 병

1. 연구소 소개 ■ ■ ■

1-1. 연구소 설립 경위

- ◎ 2023년 11월 개최된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사업을 2024년 말에 종료하고 고려대학교에 식량안보연구소를 개설하여 재단의 모든 자산과 사업을 이관하기로 의견을 모음.
- ◎ 2024년 4월 5일 이철호 명예이사장이 2010년 재단 출연금으로 기탁한 1억원을 고려대학교에 기부 약정하였으며, 2024년 11월 21일 납입하였음.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부 약정식〉

- ◎ 2024년 10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박현진 교수 외 4인의 발기인으로 고려대학교 준연구소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설립신청서를 제출함. (발기인: 박현진, 정남현, 박은영, 손홍석, 안병일 교수)
- ◎ 2024년 10월 개최된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재단을 2024년 10월 31일 해산하고 잔여재산 출연금 1억 원을 고려대학교에 식량안보연구소 설립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함.
- ◎ 2024년 11월 15일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개소식 겸 제1회 식량안보세미나 '식량안보의 미래를 논하다'를 개최함.



- ◎ 연구소 제1차 운영위원회를 2025년 3월 21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동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함.

1-2.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자산 이관 목록

▶물품 인계사항

품명	수량	금액(대략)	사용처
데스크탑 본체	4	3,000,000원	재단 사무실
모니터	3	450,000원	재단 사무실
노트북	1	1,000,000원	재단 사무실
칼라프린터	1	800,000원	재단 사무실
전자레인지	1	120,000원	재단 사무실
선풍기	2	100,000원	재단 사무실
진공청소기	1	70,000원	재단 사무실
전기난로	2	80,000원	재단 사무실
사무용 책상	2	200,000원	재단 사무실
사무용 의자	2	150,000원	재단 사무실
회의용 테이블	1	150,000원	재단 사무실
회의용 의자	4	160,000원	재단 사무실
4단 책꽂이	10	300,000원	재단 사무실
파티션	9	360,000원	재단 사무실
운반용 카트	4	150,000원	재단 사무실
도서출판 식안연 도서			기증도서 용

▶도서출판 식안연 도서 재고 현황

단행본

도서명	재고량
음식오케스트라	10
2030년을예측한다 식량전쟁	3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날개달다	6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5
과학이보인다 1 (과학의역사)	3
과학이보인다 2 (동아시아의과학)	3
과학이 보인다(개정증보판)	6
FOOD WAR 2030	3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34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3
요셉의 지혜-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7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17
21세기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11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16
건강100세 장수식품이야기	12

도서명	재고량
비만과의 전쟁	3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14
처음 10년을 돌아보며	5
식품미생물학사전	4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12
한국의 발효식품	1
식품위생안전법규와 제도	37
한국식품사연구	6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3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23
한국 근현대 식품사	8
식량과 정책	5
광복70년 인생70년	9
팔십인생	26
콩 스토리텔링	32

식량안보 시리즈

도서명	재고량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45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12
GMO 바로알기	10
쌀의 혁명	9
식량낭비 줄이기	8
목소리와 견해	81

도서명	재고량
신육종기술	11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	12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	9
Yes to GMOs 생명공학기술의 진실	3
방사능 · 방사선 & 식품안전	2

1-3. 연구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식량안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생명과학대학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연구소는 식량안보를 위한 경제정책과 식품산업 신기술 발굴, 연구 및 제품화에 관련된 첨단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식량 비축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한민국과 인류의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반도 식량 수급과 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책개발
2. 세계 식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연구
3. 신선 및 장기저장 식품 신기술 연구
4. 비축 식량의 곰팡이 독소 저감 등 식량의 안전성 연구
5. 산학협력 연구 개발사업 수행
6. 세미나, 강습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와 간행물의 발간
7.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기구 및 임원

제5조(기구)

- ①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식량안보 정책연구부
 2. 식량안보 신기술연구부
 3. 식품 안전성 연구부
 4. 연구지원실
- ② 각 연구부에는 전문 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6조(분장업무)

- ① 식량안보 정책연구부

한국형 식량안보지수의 개발 및 전쟁 등 식량위기 상황에 대한 식량비축 전략, 해외 곡물 수입처 다변화 및 곡물의 해외 공급망 확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② 식량안보 신기술 연구부
 - 1) 식품의 대량생산, 저장,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확 후 손실 저감화 기술
 - 2) 건조, 발효, 가열살균, 저온저장, 방사선조사기술, 냉동기술 등을 통한 장기 저장기술
 - 3) 기타 식품저장 신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

③ 식량 안전성 연구부

대표 식량인 쌀, 밀, 옥수수 등의 식량자원에 발생하는 식량 곰팡이 독소 저감 등 식량의 안전성 개선과 신기술(생물공학, 방사선조사 등)의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

④ 연구지원실은 출판, 자료정리 및 관리 등 서무 및 일반 행정 사무를 담당

제7조(구성)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연구부장 3명
3. 운영위원 10명 내외
4. 연구교수 1명 이상
5. 행정직원 1명

제8조(소장)

- ① 소장은 본교 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생명과학대학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연구부장)

- ① 연구부장은 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② 연구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각 연구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운영위원)

- ① 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생명과학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② 산업계 운영위원 3-4명을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전체 운영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제11조(연구교수)

- ① 연구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② 연구교수는 연구지원실장을 겸하며 연구, 서무 및 일반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12조(임기) 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제1항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있는 연구소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며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기능

- ①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보고
- ②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 ③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④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 ⑤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 ①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이 센터에서 지원한 연구과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 ③ 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추후 연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를 활용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특별연구회)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및 특별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6조(경비) 이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외부연구비, 구성원의 기여금, 수수료, 개발보전비, 찬조금 및 과실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예산과 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이 연구소의 수입, 지출은 연 1회 이상 기획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5장〉 규약 개정 및 준용

제21조(규약 개정 등) 이 연구소의 규약 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4.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연구소장



박현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좌교수

연구부장



박은영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식량안보 신기술연구부장



정남현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식품 안전성 연구부장

운영위원



이철호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김재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임정배
대상(주) 사장



최낙현
(주)삼양사 사장



서형수
영흥식품(주) 회장



박 린
CJ제일제당(주) 식품한국대표



손홍석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이민혁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하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행정조교

선희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식품자원경제학과)

2. 1차년도 사업내용 ■ ■ ■

2-1. 운영위원회 개최

(1) 1차 운영위원회

- * 일시 :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11:30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동관) 교수회의실
- * 참석자 : 이철호 교수, 박현진 교수, 조용성 학장, 서형수 영흥식품(주) 회장, 임정배 대상(주) 사장(代理 김승태 상무), 최낙현 (주)삼양사 사장(代理 윤경수 상무), 박린 CJ제일제당(주) 식품한국대표(代理 이가형 부장), 정남현 교수, 손홍석 교수, 박은영 부교수, 이민혁 조교수
- * 회의 내용 :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임원 선임 및 2025년도 사업계획(안) 논의



(2) 2차 운영위원회

-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17:00
- * 장소 : 파크루안 역삼점(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 아세아빌딩 지하1층)
- * 참석자 : 이철호 교수, 박현진 교수, 조용성 학장, 서형수 영흥식품(주) 회장, 임정배 대상(주) 사장, 정남현 교수, 하재원 교수, 이민혁 조교수
- * 회의 내용 : 2025년 업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운영 방향 및 향후 발전 논의, 2026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2-2. 연구사업

(1) 2025년도 연구사업

가. 지정과제 - 식량 생산 및 비축을 위한 신기술 평가와 적응성 제고 연구

- (1)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작물 생산성 향상과 이용 현황에 대한 최근 동향
책임자 - 곽상수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 (2) 대체육 생산 기술과 안전성 평가
책임자 - 박현진 교수(고려대 식품공학과)
- (3) 식품 방사선조사기술의 발전 현황과 국제적 이용 사례
책임자 - 김상철 소장(그린피아기술㈜ 연구소)
- (4) 공기합성단백질(Air protein) 생산기술의 발전과 미래전망
책임자 - 이민혁 교수(고려대 식품공학과)

* 연구기간: 2025년 7월 - 2026년 2월 (6개월 과제)

* 2025년 10월 제2회 식량안보세미나 '식량안보 신기술의 유용성과 안전성 평가' 개최

2-3. 학술회의

(1) 제1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량안보의 미래를 논하다

* 일시: 2024년 11월 15일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222호

* 주최: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후원: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주제발표

- (1) 한반도 식량안보진단과 협력 방안: 신항안보 관점에서(지성태 서울대 교수)
- (2) 국제교역 질서와 식량안보(문한필 전남대 교수)
- (3) 저소득층 식품접근성 개선: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과 식량안보에의 시사점
(이상현 고려대 교수)
- (4)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안보(김관수 서울대 교수)

* 종합토론: 좌장 박현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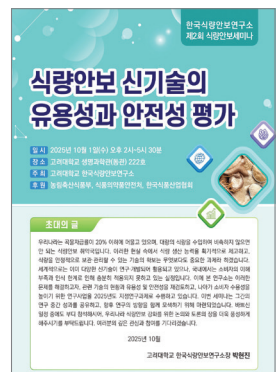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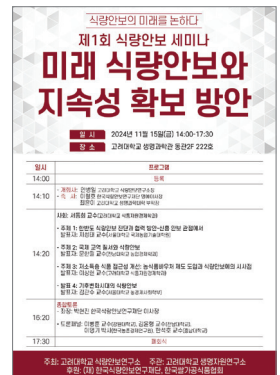
토론자 - 이병훈 교수, 김윤희 교수, 이명기 박사, 한석호 교수

(2) 제2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량안보 신기술의 유용성과 안전성 평가

* 일시: 2025년 10월 1일(수) 14:00~17:30

* 장소: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222호

* 주최: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산업협회
- * 발표자 : 곽상수, 박현진, 김상철, 이민혁
- * 지정토론자 : 문귀임, 김재경, 김승태, 이덕환
- * 참석인원 : 70여 명, 자료집 300부 제작 배포
- * 자료집 : 농식품부 장관관, 식약처장 등 80여 명에게 송부



(3) 국회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

-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10:00~12:30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 주최 :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원택, 인호선, 주철현, 문금주, 문대림, 이병진, 임미애
- * 주관 :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 의제발표: 조상현 본부장 - 쌀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전략
- 박현진 소장 - 식량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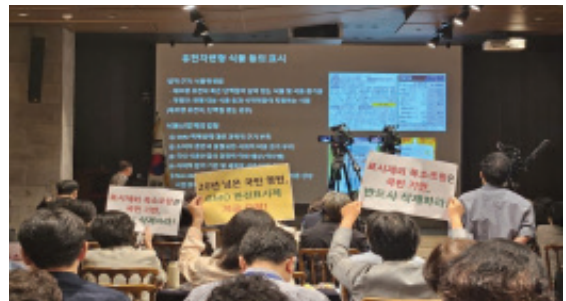
*식량안보기본법: 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29일
- 의안번호: 13364
- 주요 내용:

- 가. 이 법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경제안보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산업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여 나가도록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국가는 식량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주요 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한 식량안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제와 식량안보의 평가 및 평가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3조).
- 바.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시책, 식량위기시 식량생산 및 공급망 통제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사.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비축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쌀의 비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
- 아. 그 밖에 식량안보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및 양벌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4)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 *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13:30~17:00
- * 장소 : LW컨벤션센터, 서울
- * 주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이철호 교수- 토론편 발표 (재단 홈페이지)자료실)운영위원 칼럼 343호)



2-4. 논문 발표

(1) 학술지 논문

Cherl-Ho Lee, The Importance of Primitive Pottery Culture in the Korean Foodways, J. Korean Soc. Food Culture, 40(2): 82-91, 2025

박현진, 축산업과 공존 꿈꾸는 내일의 단백질, 대체육, 집현네트워크, 2025년 8월 5일

Cherl-Ho Lee, The Food Crisis in the New Cold War Era and Korea's Response focusing on Food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4th Global Summit on Advances in Earth Science and Climate Change, Vancouver, Canada, Oct. 1, 2025

(2)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가) 뉴스레터 1호(2025년 6월)~6호(2025년 12월) 발간, 홈페이지 게시

나) E-mail 메일링 리스트 2,000여 명에게 발송

(3) 홈페이지 관리 · 운영

뉴스기사 72건, 보고서 8건, 논문 3건, 발표/강의 자료 2건, 세미나 자료집 파일 2건, 동영상 4건 등

2-5 연구소 홈페이지 개설

연구소 홈페이지는 기존의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www.foodsecurity.or.kr)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콤비앤컴(대표 홍현찬)이 개조 작업을 했다. 개조의 방향은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자료를 가급적 모두 보존하면서 신설 연구소의 홈페이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했다.

주요 개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소 소개 메뉴에 연구소 설립 경위, 연구소 규약, 연구소 임원, 재단 자산 이관 목록 등을 신설.
- ② (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자료 메뉴에 연구재단의 모든 자료(설립취지문, 정관, 발기인 명단, 임원명단, 재단뉴스, 후원금 활용실적, 이사회, 연구지원사업, 세미나 자료집 등)를 볼 수 있게 함.
- ③ 식안연 E-Books 메뉴에서 도서출판 식안연 발행 도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
- ④ 식량양비줄이기 국민운동 메뉴를 그대로 존속시킴.
- ⑤ 중앙 메뉴판에 연구사업과 학술회의를 신설하고, 뉴스레터, 발표/강의, 논문, 뉴스기사는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함.
- ⑥ 동영상과 갤러리는 계속 사용하기로 함.

3. 1차년도 재무보고 (2025.01.01 ~ 2025.12.31.)



수입(후원금)		지출	
대상(주)	2,000만원	고려대학교 재단 overhead	1,200만원
삼양사	2,000만원	연구용역비회의비(자문료, 인건비 등)	4,400만원
CJ제일제당	2,000만원	고려대학교 적립금	400만원
영흥식품(주)	1,0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합계: 7,000만원		합계: 7,000만원	

4. 운영위원 칼럼



문화영토시대의 한민족 음식문화 (식품음료신문, 2025년 11월 18일)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일생을 잃어버린 민족문화의 복원과 창달을 위해 노력하신 고 홍일식 총장님은 우리 사회에 문화영토시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그분은 식민지 시대가 지나가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으면 세계는 문화영토시대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요즘 K-컬처의 세계 진출을 보면서 문화영토시대를 실감하게 된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K-푸드로 이어지면서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과 건강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음식의 매운맛은 개성과 서로 다름을 표출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환호를 받고 있으며, 식물성 재료에 기반한 한국의 발효음식은 동물성 즉석식품으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서양인의 건강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K-푸드 열풍이 계속 이어지려면 한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는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악의적 번개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일천한 고대사 열등감으로 인한 광기에 가까운 식민사관이 우리 역사에 찌든 때처럼 남아 있어 한민족 음식문화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기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고고학계의 발굴 성과에 의하면 한반도에 살던 초기 신석기인들은 해변의 채집인으로 살면서 이른 시기(기원전 8000년경)에 토기를 사용하여 찌개를 끓여 먹는 특징적인 음식문화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토기에 수산물과 찌앗, 즐기, 뿌리 등 식물성 재료를 함께 끓이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해물찌개가 된다. 발굴되는 원시 토기의 대부분이 5~6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뚝배기 형태인 것을 보면 한 가족이 둘러앉아 뚝배기에서 끓는 찌개를 퍼 먹는 장면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이때 숟가락이 필수 도구일 것이며, 오늘날 한·중·일 삼국 중에서 한국인만이 숟가락을 필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찌개 문화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젓갈 등 염장 발효 기술을 필연적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며, 기원전 2000년경에는 원산지가 남만주와 한반도인 콩의 식용과 재배가 시작되면서 콩 발효음식 장류가 만들어지게 된다. 된장과 고추장은 찌개의 필수 재료이다.

오늘날 한국의 라면이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한민족의 오랜 찌개 문화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라면발을 만드는 것은 일본이 선두 주자였지만 한국 라면의 맵고 감칠맛 나는 국물 맛을 따라오기는 어렵다.

한국의 탕, 찌개 문화는 주로 기름에 튀기거나 볶아 먹는 중국 음식이나 생선회나 초밥으로 대표되는 일본 음식과 다르다. 산모의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꼭 먹어야 하고, 지금도 푹배기에서 펄펄 끓는 찌개를 밥상에 올려놓고 떠먹는 한국인의 별난 음식문화는 인류 문화의 시작점에서 토기 문화를 발전시킨 한민족의 뛰어난 생존 전략에서 유래한 것이다.

토기를 사용한 끓임 문화와 발효 문화는 동아시아의 채식 문화를 발전시킨 신석기 기술 혁명이었으며 서양의 육식 구이 문화와 대별되는 인류사적 분기점이 된다.

한민족 음식문화의 역사와 인류사적 중요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문화영토시대 한민족 음식문화의 역할이 기대된다.

[포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GMO 완전표시제 토론회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GMO 표시제에 관한 토론회가 많았지만 오늘 같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두 진영이 얼굴을 맞대고 공개토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즉 이런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GMO 완전표시제를 남발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이도 이들 악법이 이번 회기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천만 다행입니다.

저는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연간 380만 톤 수준인데 수입하는 밀은 연간 440만 톤, 옥수수는 1200만 톤, 콩이 130만 톤입니다.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은 거의 전량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곡물시장에서 유통되는 콩과 옥수수의 80%가 GMO 신제품입니다. 우리가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GMO를 배척하면 세계 시장에서 사울 식량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non-GMO를 찾더라도 수입 비용이 30% 가량 높아집니다. 그렇잖아도 식량수입으로 막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국가 식량공급을 책임 맡고 있는 농식품부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농식품부는 농민의 눈치를 보느라 앞에 나서서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GMO 완전표시법이 통과되면 식량공급이 어려워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먹을 게 부족해지는데 그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뭘 더 알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럽은 곡물 생산이 충분하고 외국의 값싼 수입곡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곡물 자급률이 20%도 안 되는 한국이 유럽의 제도를 모방한다면 세계가 웃을 일입니다.

둘째로 GMO 완전표시제의 골자는 현행 표시제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변형된 유전자나 그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GMO 신제품이 사용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식품안전관리 당국에서 GMO 유래 식품인지 아닌지를 과학적 분석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신력을 잃게 되고 식품생산업체들과 이길 수 없는 분쟁에 끝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혹자는 이력추적제나 원료구매대장을 조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품 이력추적제는 워낙 방대한 행정력을 요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들

의 주요 식품(예를 들어 육가공 제품이나 유가공 제품)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국산 제품에는 관리당국이 원료구매대장 조사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국산 식품은 사라지고 외제식품만 범람하게 됩니다. 국산식품은 non-GMO를 사용하여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게 되고, 외제식품은 우리 관리당국이 외국에 있는 회사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표시 없이 팔리게 됩니다. 식품업계가 완전표시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GMO 표시제는 이런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과 동일하게 GMO 흔적이 없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표시를 면제하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2008년에 일어났던 광우병대란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GMO는 위험한 것으로 잘못 세뇌당한 국민들이 “시장에서 사먹을 음식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 정부는 GMO 신제품 상용화 초기부터 그 안전성을 인정하여 수입을 승인했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은 알게 모르게 유전자변형 신제품을 먹어 왔습니다. 표시가 면제된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입니다. 이들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식용유와 간장이 들어가지 않은 반찬이 없으며 식용유와 전분당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와 기호식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들 식품에 모두 GMO 표시가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태를 어느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GMO 표시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으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는 공약이고 해서는 안 되는 공약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용유 하나만이라도 표시 의무화 하자고 합니다. 안될 일입니다. 저수지의 독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 하나를 내지는 속수무책입니다. 식용유를 의무화 하면 식용유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GMO 신제품은 전 세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팽창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재난으로 부족 되는 식량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한 인류의 생명줄입니다. 이제까지 콩과 옥수수에 주로 이용되던 유전자변형기술이 쌀과 밀에도 적용되면서 세계 곡물생산이 생명공학 신제품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30년전 이 기술이 처음 상용화될 때에는 학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런 부작용이 보고된바 없으며, 노벨상 수상자 모임과 각국의 과학한림원이 그 안전성을 인정하고 GMO 괴담을 더 이상 퍼트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GMO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그린피스도 이제는 꼬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유기농협회가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GMO 괴담은 모든 식품을 위험하다고 해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사업 특성상 GMO 반대운동을 계속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 협회가 제작한 유전자클레임이라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내가 식품공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헛가닥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 잘못된 실험이라고 폐기한 내용을 교묘히 각색해서 GMO를 괴물로 둔갑해 놓은 영화입니다. GMO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영화를 보고 헛가닥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일부 친환경식품 업체와 소비자단체들이 회원들에게 이 영화를 의무적으로 보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모여 앉았는데 “거기 독이 들어 있을지 몰라요”라고 말해 모두를 굶주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이런 불순한 행동들이 오늘날 GMO 완전표시제가 법으로 만들어지는 앓절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3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먹고 있는 생명공학 신제품에 대해 더 이상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면 따로 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일부 소비자 시민운동가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혼란과 국익 손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가 필수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는 MSG가 유해하다며 불매운동을 벌여 조미료산업의 종주국인 일본과 경쟁을 벌이던 국내산업이 회사명도 버리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도록 초토화시켜 놓고 지금은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게

만든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광우병 괴담을 퍼트려 반년 가까이 정부를 마비시킨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그때 보다 더 많이 사 먹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걸고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기에는 그 악영향이 너무 큼니다. 유전자변형 기술이 인류가 추구해온 육종기술의 한 발전단계이고 GMO 신품종이 안전한 식량임이 확인된 현 시점에서 GMO 표시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금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GMO작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수입을 이미 30년 전에 허용했으며 홈페이지에 그 안전성과 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의 압력으로 국민의 식량접근성을 악화하고 엄청난 국부 손실을 초래할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될 일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전문가들이 뜨내기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포청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럼] 식품산업의 기초를 흔들지 말자 (식품음료신문, 2026년 2월 9일)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식품산업의 기초는 원료 소재산업이다. 밀과 옥수수로 만든 밀가루와 전분당, 설탕과 콩기름 등이 중요한 식품가공 원료이다. 이들 소재가 없으면 빵, 라면, 과자, 음료수 등 대부분의 식품을 만들 수 없으며, 이들 소재산업이 어려워면 식품 공급이 어려워지고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식품 소재산업을 보호 육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설탕 가격 담합이라는 죄명으로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제당 3사의 대표이사 2명을 구속하고 9명의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6개 제분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규모가 5조9913억원, 설탕 가격 담합 규모가 3조2715억원이라고 연일 언론에 고발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커다란 불신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담합규모가 신빙성이 있는 수치인지, 그 계산 방법이 올바른 지에 관해서는 식품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급히 밝혀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식품 소재산업은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원료곡물을 거의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환율은 IMF 이래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이 감내할 수준을 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재난으로 세계 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출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식품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공권력을 총 동원해 식품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주장에 밀려 멸절된 생명공학 신품종(GMO)을 악마화 하는 완전표시제를 금년 12월 부터 시행하여 식품가격이 전반적으로 20~30% 인상되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조업의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각종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식품산업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K-푸드 로 수출 활로를 넓히려 애쓰고 있다. 국민의 생존이 직결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식품산업인은 누구 못지 않은 애국자들이다.

식품산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신냉전시대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지정학


적으로 착취적 사회주의 독재체제와 포용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맞붙는 소용돌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량이다. 우크라이나가 강적 러시아와 맞서 예상밖으로 장기전에 견디고 있는 것은 충분한 식량 덕분이다. 식량(곡물)자급률이 20% 밖에 안되는 한국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당장의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식품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걸핏하면 담합이라는 죄명으로 식품산업을 옥죄는 관행도 이제는 시장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한 지혜로운 눈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풍전등화와 같은 오늘의 대한민국 정세를 바로 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슬기로운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4th Global Summit on

**ADVANCES IN EARTH SCIENCE
AND CLIMATE CHANGE**

Sep 29-30-Oct 01, 2025



**The Food Crisis in the New
Cold War Era and Korea's
Response focusing on
Food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Cherl-Ho Lee
Korea Food Securit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recent world food crises, such as the 2007/2008 world grain price hike, and the subsequent food crises caused by extreme weather, the prevalence of infectious livestock disease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Ukraine-Russian war.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n Korea is assessed and the measures to prepare for the anticipated food crisis are suggested. Korean Peninsula has been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in 1945 and in the state of cease fire since Korean war. South Kore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half century and its per capita income reached over \$30,000. However, its grain self-sufficiency rate has fallen below 20%, making the country the most vulnerable food security nation among OECD countries. The Korea Food Security Research Foundation is urging that a stockpiling of 1.2 million tons of rice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a free rice support system for low-income households be implemented first in South Korea. The Foundation is carrying out a campaign to reduce food waste and is continuing efforts to reduce food waste by half and increase the food energy self-sufficiency rate of Korea from 32% to 50%. Food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are important policy issues in Korea, and various ministries are taking interest and implementing various projects. This paper introduces examples of food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being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food companies.

Biography

Cherl-Ho Lee has been teaching Food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for 30 years since 1979. He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Agricultural Chemistry and received his Ph.D. at the Royal Veterinary and Agricultural University of Denmark, and was a post-doctorate research associate at MIT, Cambridge, US. He established Korea Food Security Research Foundation in 2010 and served as chairman/honorary chairman until 2024. He has published over 250 research papers, five books in English edition, eight books in Korean, and has co-authored or edited 30 books in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nd Food Security.

도서출판 식안연 주요 출판 도서 목록

2026년 2월 현재

〈단행본〉

도서명	연도	저자
식량전쟁 (Food War 2030)	2012년	이철호 (영문판 2013)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 달다	2012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2012년	이철호, 문헌팔, 김세권, 김용택, 박태균, 권익부 (영문판 2015)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2014년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이숙중, 이꽃임
韓 · 中 · 日 식량정책 비교	2017년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콩 스토리텔링 (국영문 합본)	2017년	한국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편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2018년	성명환, 오정규, 김민수, 임호상, 이철호
건강100세 장수식품 이야기	2019년	박상철, 이미숙, 이철호, 김경철, 신동화, 박현진, 권대영, 채수완
요섭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2019년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비만과의 전쟁	2019년	이철호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2019년	박현진, 김덕호, 권오란, 김현옥, 박태균, 이철호
한국식안연재단 처음10년을 돌아보며	2020년	이철호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2021년	이철호, 최지현, 박성진, 이남택, 송성완, 박태균
한국의 발효식품-역사,문화 &가공기술	2021년	신동화 편저
식품위생안전법규와 제도	2021년	전은숙
한국식품사연구	2021년	이철호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2022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한국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2022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식량과 정책	2023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한국 근현대 식품사	2023년	이철호
21세기 새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2024년	이철호
팔십인생	2024년	이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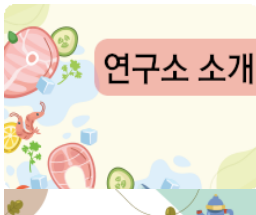
〈식량안보 시리즈〉

도서명	연도	저자
1.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2014년	이숙중, 이철호
2.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2015년	김영수, 최재성, 석호문, 신동화
3. GMO 바로알기	2015년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4. 쌀의 혁명	2015년	이철호, 이숙중, 김미령
5. 식량낭비 줄이기	2016년	채희정, 이숙중, 이철호
6. 목소리와 견해: 왜 생명공학인가?	2016년	Navarro, M.J. (Ed.), 2015, 원저/ 크롭라이프코리아 번역
7. 식량생산 제고를 위한 新육종기술	2017년	한지학, 정 민
8.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	2017년	곽상수, 박성철, 이준설
9.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	2018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10. 'Yes to GMOs' 생명공학기술의 진실	2018년	Borut Bohanec & Miššo Alkalaj
11. 알기쉬운 방사능·방사선 & 식품안전	2020년	권중호
12. 식품과학자가 바라본 우리음식과 식품산업	2023년	신동화

*상기 도서들은 한국식량안보연구소 홈페이지(www.foodsecurity.or.kr) '식안연 e-Books'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음.



공지사항 바로가기 >>
발효식품의 건강기능성과 프...



연구소 소개

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자료



식안연
E-BOOKS



식량안비출이기
국민운동
바로가기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KOREA FOOD SECURIT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연구사업] MORE >>

한국식량안보연구소 2026년 연구사업(...)
식량안보기본법, 국회 윤준병 의원 대...
한국식량안보연구소 2025년 연구사업(...)

[+학술회의] MORE >>

2026년 제1회 식량안보간담회
제2회 식량안보세미나 자료집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제2회 식량...
국회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

[+뉴스레터] MORE >>

식량안보연구소 뉴스레터 제6호
식량안보연구소 뉴스레터 제5호
식량안보연구소 뉴스레터 제4호
식량안보연구소 뉴스레터 제3호

[+발표/강의] MORE >>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 연구소 제1회... **NEW**
The Food Crisis in the New Cold War...
한국식문화의 변천사 한韓 민족 음식...
한韓 민족 음식문화의 기원 - 이철호 ...

[+논문] MORE >>

The Food Crisis in the New Cold War ...
축산업과 공존 꿈꾸는 내일의 단백질, ...
The Importance of Primitive Pottery ...
대한해협연안의 원시토기문화에 관한 ...

[+뉴스기사] MORE >>

[기]고 식품산업의 기초를 흔들지 말자 **NEW**
[칼럼] 양(量)에서 질(質), 그리고 식... **NEW**
한식세계화 갈 길 멀어...조리법 표준화... **NEW**
K-푸드 기초소재 전분당 산업, 중국산 ...

[+동영상] MORE >>



[안전특독 ...



The Food Cri...



K푸드 열풍이...



제2회 식량안...



제2회 식량안...



제2회 식량안...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KOREA FOOD SECURITY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109A호 | 02841 | 02-3290-4279 | foodsecurity@foodsecurity.or.kr